

지역체육지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gional Sports Index

여경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초빙연구원) · 김미옥*(한국체육대학교 교수)

Kyoung Ah Yeo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 Mi-Ok Kim*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지역 간 체육여건 분석 및 수준 진단을 위한 지역체육지수를 개발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내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지역체육지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표 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둘째, 기존자료 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지역체육지표를 선정하였다. 지역체육지수는 보편성, 대표성, 명료성, 신뢰성, 조사의 실현가능성 등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30 스포츠비전」이 제시하는 비전,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활용하여 체육 현황 통계 자료 수집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지표를 구성하였다. 지표의 세부 구성은 지역체육활동 수용력, 지역체육활동 활력도, 지역체육 혁신역량, 지역 체육 거버넌스 등 4개의 대분류 항목과 중분류 12개 항목, 세부지표 25개로 구성하였으며, 모두 정량 지표이다. 지표별 가중치를 알아보기 위한 AHP 조사결과 대분류는 지역체육활동 수용력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지역체육지수를 산출하고 지역 간 체육여건 분석 및 수준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a regional sports index for analysis and level diagnosis of physical conditions between regions and to confirm their applicability. To this end, first, the concept of the local sports index was established through a domestic prior research study, the direction of the index system was set, and second, the local sports index was selected through the analysis of existing data and expert research. The regional sports index is based on five criteria: universality, representativeness, clarity, reliability, and feasibility of the survey. Using the vision, policy direction and tasks presented by 「The 2030 Sports Vision」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tatistical data on the status of sports Detailed indicators were composed by collecting and collecting expert opinions. The detailed composition of the index consists of 4 major categories such as local sports capacity, regional sports activity vitality, regional sports innovation capacity, and regional sports governance, 12 middle categories, and 25 detailed indicators, all of which are quantitative indicators. As a result of the AHP survey to find out the weight of each index, the large classification showed the highest capacity for local sports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actual local sports index and to analyze and diagnose the physical conditions between regions.

Key words : Regional Sports Index, Delphi Method, AHP

* kimmiok@knsu.ac.kr

** 본 연구는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 서론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체육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양분화되어 있던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2030 스포츠 비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모든 국민을 위한 즐거운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육발전 수준 및 활동 추세를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여건 조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내의 체육관련 현황 및 통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체육백서’, ‘국민생활체육조사’, ‘공공체육시설 현황’, ‘전국 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 ‘장애인생활체육조사’, ‘스포츠산업백서’ 등 다양한 간행물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의 자료로는 지역의 체육여건 및 활동 추세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9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면적, 인구, 연령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간 체육여건 및 활동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표준화시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타 분야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및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가중치 산출로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사회 지수(index)라고 한다(최석현, 하보란, 2013). 최석현 등(2013)은 지수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가능성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체육 분야에서도 지수 개발을 통해 지역의 체육 여건과 체육활동 추세 파악이 필요하다.

체육 분야에서의 지역 간 체육지수 개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보고서는 ‘스포츠도시 선정 평가지표 개발연구(김미옥, 2015)’와 ‘체육균형발전지수 개발(송명규, 2016)’가 있으나 위의 연구는 지역의 체육 정책 등 지역의 여건 파악만 가능할 뿐 체육활동 추세 파악은 불가능하다. 또한 최근 들어 체육지수 개발 관련 학술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생활체육 체감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신상현, 남윤신, 2021)’는 생활체육 체감지수 지표를 생활체육 인프라 환경, 스포츠 문화 환경, 생활체육 참여 만족도로 구성하여 체육활동 추세 관련 내용만 산출이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별 비교관점의 체육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김민철, 김성환, 2022)’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 체육시설, 스포츠산업, 장애인체육, 스포츠복지, 체육행정 등 여덟 개 분야의 지역별 체육지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측정하여 기존의 연구보다 지역 간 차이를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부지표 중요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준다. 즉, 위의 연구에서 생활체육 영역의 세부지표는 동호인 회원현황, 생활체육 광장 참가자 수, 생활체육 참여율로 구성되었는데 각 세부지표별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 점수만을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형 체육정책은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지역별 차등 없이 고르게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로 정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변화 과정을 정기적·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체육발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체육 여건과 체육 활동 추세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총체적, 집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기준 개발이 요구된다. 체육 분야보다 먼저 지수 개발 및 정책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타 분야는 개발기준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지표가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 스포츠발전 현황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표준화·객관화된 지역체육지수 지표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체육지수 지표는 지역의 체육발전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정부의 체육정책의 효과적 수립 및 집행, 평가에 기여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여건을 평가하고, 지역 간 격차 여부 비교·분석을 위한 지역체육지수를 체계적·객관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체육지수 개발을 위한 기본적 개념과 체계 마련을 위해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체육지수 지표 체계 구성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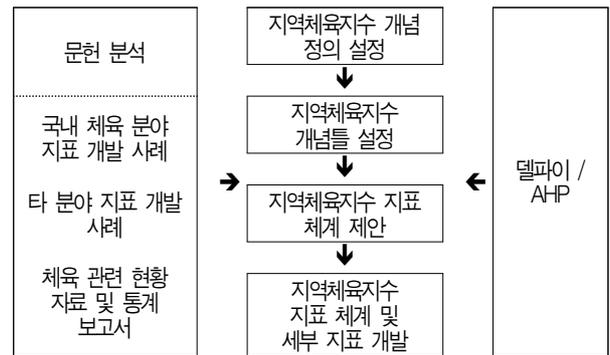


그림 1. 지역체육지수 지표 구성 과정

2.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지역체육지수 지표 체계 설정을 위해 정부 주도 체육정책 검토,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지자체 및 유관 체육단체 추진 사업 및 사업결과, 체육현황 통계 자료 검토와 함께 체육 및 타 분야 지역 지표개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체육분야의 지표개발 사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연구 수행하여 개발된 「스포츠도시선정지표」와 「체육균형발전지수」를 검토하였으며, 타 분야의 지수 개발 사례를 확

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에 활용된 「지역문화지수」,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에 활용된 「지역관광발전지수」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3. 전문가 회의

문헌연구 분석으로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체육정책연구자, 체육정책관, 통계전문가, 교수 등 10명의 전문가와 3차 회의를 통해 지역체육지수 지표를 구성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e-mail로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국·내외 체육 및 타 분야 지표 범주 내용을 미리 공유한 후, 1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표 핵심주제를 선정하였다. 1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역체육지수의 개념에 포함되는 핵심주제의 근거를 ‘2030 스포츠 비전’으로 선정하였다. ‘2030 스포츠 비전’은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을 전면에 내세운 비전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사업의 기본 방향이다. ‘2030 스포츠 비전’은 스포츠 변화상, 스포츠 행정 및 시스템 진화, 생활체육의 참여 확산,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스포츠 복지 등 다각도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하였기에 ‘2030 스포츠 비전’ 수립 시 반영된 다양한 요소 중 시계열적으로 체육수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지역별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핵심주제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지역체육지수의 범주 및 핵심주제는 <표 1>과 같다.

표 1. 지역체육지수 개념틀 구성을 위한 핵심주제

범주	핵심주제	연관 단어
체육활동 기본 환경	정책, 예산, 계획, 시설, 인력, 인프라	1) 체육 단체, 체육 예산, 체육 관련 조례 2) 체육시설, 체육시설면적, 체육시설 접근성 3) 체육활동 지도자
체육활동 참여 수준	생활체육, 체육동호회, 생활체육클럽, 학교체육클럽, 체육 강습·강좌, 건강, 가치	1) 생활체육 참여, 체육동호회 가입, 체육 강습·강좌 경험, 체육클럽, 학교체육 클럽
체육활동 지원 역량	생애주기, 체육활동, 체육복지, 취약계층, 체육단체, 지역, 네트워크, 정보화, 선진화	1)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장애인 체육 활동, 체육프로그램, 체육교실, 바우처 2) 체육정보, 체육시스템, 지역체육회, 지역체육회 자립

2차 전문가 회의는 지역체육지수 개념틀에서 제안한 ‘범주’를 토대로 지표 체계의 ‘대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지역체육지수 지표 분류 체계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여기서 ‘범주’에 포함된 핵심주제를 세분화하고자 ‘체육활동 지원 역량’은 분류체계를 분리하여 두 개의 대분류로 나누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지역체육지수 세부 항목 및 지수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 후 델파이 조사를 위한 지역체육지수 세부 지표를 구성하였다.

표 2. 지역체육지수 지표 분류 체계 초안

범주	대분류	주요 내용
체육활동 기본 환경	지역 체육 활동 수용력	· 지역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총체적 기반 환경을 의미 · 시계열상으로 지역체육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되, 미래의 발전 역량을 내포하고 있음 · ‘2030 스포츠 비전’이 제안한 ‘운동하기 편한 나라’의 비전을 통해 추진되는 과제들과 같은 맥락으로, 체육환경, 체육시설, 체육자원, 체육복지 실현 등의 핵심 주제를 포함함
체육활동 참여 수준	지역 체육 활동 활력도	· 지역주민 즉, 체육활동 기반 환경에 대한 이해자가 체감하는 지역의 체육활동 현황 및 체육시설 이용 환경, 체육에 대한 가치 등을 의미 · 시계열상으로 지역체육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며, 체육활동에 대한 가치 인식도, 체육활동 기반 환경에 대한 효용성 및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음 · ‘2030 스포츠 비전’이 제안한 ‘운동하기 편한 나라’의 추진 방향을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실태를 확인하여 추후 정책 및 체육 관련 사업들의 아젠다를 도출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함
체육활동 지원 역량	지역 체육 혁신 역량	·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체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 노력을 의미 · 주로 지역주민의 인구구조 및 특이성을 인식하고, 니즈를 파악하여 체육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 복지적 차원의 사업, 선진 시스템 도입 등 다면적·다층적 지표를 포함함 · ‘2030 스포츠 비전’이 제안한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의 추진 방향과 유사한 맥락이며, 동시에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이 포함하고 있는 체육정보의 정보화 등의 핵심 주제를 포함함
	지역 체육 거버 넌스	· 지역체육 수준에 대한 책임과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육정책 및 체육사업을 추진할 기반 형성에 대한 노력을 의미 · 주로 지역체육 네트워크, 체육단체 시스템, 경영 혁신 정도 등 지표를 포함함 · 지역체육지수 개념틀에서 제안한 ‘체육활동 지원 역량’에 대해 ‘지역 자치’에 포커스를 두고, ‘지역체육 거버넌스’ 분류체계를 별도로 구성함

4. 델파이 및 AHP 분석

전문가 회의 후 도출된 지역체육지수 지표의 적합성, 타당성, 현실성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하여 델파이 및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델파이 및 AHP 분석은 교수, 행정가, 체육정책연구자 등 20명이 참여하였으며<표 3>, 각 회차별 조사는 e-mail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상아휘, 진승태, 2022). 1차 델파이 조사는 2021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로 도출된 결과에 대해 연구진 회의를 통한 지표수정을 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수정사항과 내용타당도, 합의도, 사분위간 구역과 중위수를 제시한 후, 동의 정도에 대하여 재조사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 대한 전문가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활용하였는데, 변이계수는 0.5

이하일 때 높은 수준의 합의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추가 재조사는 필요 없다.

본 연구의 2차 조사 결과에 대한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산출한 결과값은 0.1-0.3으로 나타나 지역체육지수 지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2차 델파이에서 조사를 중단하였다. 2차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타당도(CVR)를 확인 후, Lawshe가 제시한 전문가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 기준에 근거하여 (백종철, 한민규, 2022) 내용타당도 지수 0.42 이하의 값은 최종 지표에서 제외 후 최종 지역체육지수 지표를 변경·확정하고 각 지표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분석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AHP는 다수의 속성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쌍대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김성덕, 2020). AHP 조사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가중치를 바탕으로 지역체육지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표 3. 델파이 및 AHP 분석 전문가 특성

번호	성명	전공분야	직위
1	김00	생활체육	연구원
2	김00	장애인체육	연구원
3	고00	스포츠산업	연구원
4	조00	거버넌스	연구원
5	이00	전문체육	연구원
6	차00	체육단체	과장
7	이00	생활체육	교수
8	조00	생활체육	교수
9	송00	생활체육	교수
10	서00	스포츠산업	교수
11	최00	전문체육	교수
12	황00	전문체육	교수
13	장00	전문체육	교수
14	김00	법제도	교수
15	이00	체육단체	부장
16	강00	생활체육	시간강사
17	이00	생활체육	교수
18	양00	체육단체	주임
19	정00	전문체육	시간강사
20	김00	지자체	주무관

III. 지수 개발 사례 분석

1. 국내 체육지수 개발 현황

체육분야의 대표적인 지수 개발 사례는 「스포츠도시 선정지표」와 「체육균형발전지수」이다. 스포츠도시 선정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로 성장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스포츠도시로 지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스포츠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도시 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스포츠도시 선정지표의 개발 기준은 스포츠도시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대표성, 활용가능성, 비교객관성, 보편성, 명료성을 기준으로 선

정하였다. 첫째, 대표성은 대분류 지표에 대한 기준으로, 소분류 영역을 구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되, 소분류 지표는 관심영역을 가장 잘 집약하고 대표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둘째, 활용가능성은 선정된 평가지표가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자료 구득이 용이하지 못하면, 지표의 포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기술적으로는 측정 가능하며 평가 시점 기준으로 자료 입수가 용이한 항목을 평가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셋째, 비교객관성은 평가대상인 도시가 비교 불가할 정도로 편차가 크거나 통계자료 수입이 어려운 항목을 가급적 배제함으로써 비교의 객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넷째, 보편성은 시계열 비교가 불가하거나 지역적 편중이 큰 지표를 배제함으로써 평가의 보편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지표로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명료성은 선정된 지표가 함축하는 의미가 간결하고 명확하여 평가기관 및 피평가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항목을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스포츠도시 선정 지표는 대분류, 중분류, 측정지표로 구성하였으며, 대분류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최종 4개의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중분류는 대항목별 4개의 항목을 포함하여 최종 16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세부 측정지표는 정성적 평가 기준에 합당하고, 가용 자료 유무 여부에 따라 설정하였다.

체육균형발전지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금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목표 수준과 현재 달성정도와의 차이가 큰 지역을 찾고, 어떤 유형의 기금지원이 효과적인지 판단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개발하였다. 체육균형발전지수는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체육활동 환경과 체육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단일수치로 표현한다.

체육균형발전지수는 기본적으로 지니계수 산출방식을 활용하되, 자료의 최적화를 위해 시도별 인구 1인 또는 1만 명 당 기준으로 자료를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여 정량적 평가는 체육진흥기금사업 중 4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기준으로 하였으며, 정성적 평가는 지역별 생활체육참여에 대한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도, 행복감 등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2. 국내 타 분야 지수 개발 현황

첫째, 지역문화지표는 지역 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편중, 인력 및 재원 불균형 등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초 통계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발되었다. 지역문화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통해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문화지표의 개발 기준은 첫째, 공공성으로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여하는 ‘공공문화정책’의 영역을 지역문화지표의 기본 범위로 정하였다.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지역문화 사업은 영리목적의 사업이 많으며, 지역별로 확연한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표에서 제외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대표성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되 지역의 문화수준을 객관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상관없이 상호 비교가 가능한 보편적인 지역문화의 요소를 지표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 기준은 조사의 실현가능성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자료일 경우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집과 분석에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동일한 형태로 수집이 가능한 자료인지를 고려하였다. 특히 객관성이 확보된 현황자료 또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공식 통계 등 출처가 명확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지역문화지표는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4대 분류에 28개 문화지표를 적용하여 전국 22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지표 자료를 구축 및 재가공하고 있다. 특히 지표 값을 예산규모, 단위인구 등으로 환산하여 서로 다른 단위(% , 명, 원, 개 등)로 구성된 지표값을 같은 단위로 변환하는 등 결과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있다. 또한, 전문가 대상 AHP 조사를 통해 평가요인을 계층화한 후 단계적으로 중요도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가중치를 산출하여 T-test, 분산분석(ANOVA) 등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를 분석하고 있다.

둘째,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관광 위상이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각 지역의 관광발전 정도 및 잠재역량, 지역관광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하여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관광발전지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기준을 근거로 개발되었다. 첫째 기준은 ‘통제가능성’으로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지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측정용이성’으로 지수의 산식화 및 수치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셋째는 ‘신뢰성’으로 측정이 가능한 계량지표를 바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적·증빙자료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넷째는 ‘신속성’으로 자료 확보가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즉 자료가 구체적이고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개발된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의 관광자원 및 인프라 등 관광 공급 부분의 수용력과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포함한 관광소비력, 공공부분의 관광정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의 관광공급 능력, 관광소비 여건, 정책역량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분류 3개, 중분류 7개, 소분류 21개의 복합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승인통계자료, 지자체 행정조사,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표값을 산출한다. 또한, 평가완료 후 관광발전지역의 등급을 구분하여 100점을 기준으로 100점 이상은 1등급, 100점 이하는 2-6등급으로 구분하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지역체육지수 지표 설계

지역체육지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30 스포츠비전」을 핵심 개념으로 보편성, 대표성, 명료성, 신뢰성, 조사의 실현가능성 등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보편성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되 각 지역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인 항목이다. 둘째, 대표성은 소분류 영역을 총체적, 구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며, 소분류 지표는 관련 영역을 가장 잘 집약하는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명료성은 함축하는 의미가 간결하고 명확한 항목을 의미하며, 넷째, 신뢰성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통계·실적·증빙자료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 있는 항목을 의미한다. 다섯째, 지역체육지수는 조사의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 입수에 용이한 정량지표를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수집·분석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동일한 형태로 수집이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항목을 선정하였다.

지역문화지표나 지역관광발전지수가 지표 구성의 기준 근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과학적 체계를 갖추었던 반면, 체육 분야의 지표개발 연구는 그동안 체계적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연구마다 다른 기준에 의해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스포츠비전 2030’을 토대로 지표 구성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갖추었으며 추후 진행될 체육지표 연구에도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이상의 지역체육지수 지표 구성 기준을 근거로 3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한 지역체육지수는 지역체육활동 수용력, 지역체육활동 활력도, 지역체육 혁신역량, 지역체육 거버넌스 등 대분류 4개와 중분류 14개, 세부지표 35개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정량 지표이다.

2. 델파이 조사 결과

1) 지역체육활동 수용력

지역체육활동 수용력은 지역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및 인프라 등 기반 환경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지역체육활동 수용력은 중장기 체육정책 반영을 위해 ‘2030 스포츠 비전’이 제안한 “운동하기 편한 나라”의 비전에서 제시된 체육환경, 체육시설, 체육자원, 체육복지 실현 등의 핵심 주제를 포함하였으며, 시계열상으로 지역체육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되, 미래의 발전 역량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체육활동 수용력은 정책환경, 정책예산, 시설인프라, 인적인프라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는 정책환경의 세부지표로 지역 내 회원종목 단체 수, 체육 관련 조례 제정 건 수, 체육종합발전계획 수립 건 수, 체육단체 공모사업 선정 수 등 4개의 세부지표를 포함하였으며, 정책예산은 지역 총 예산 대비 체육 예산의 비율, 지역 인구 1

천 명 당 체육 예산액 등 2개의 세부지표를 포함하였다. 시설 인프라는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설치 유형 수, 지역 인구 1천 명 당 체육시설 면적, 전문체육시설 설치, 체육시설 접근성 등 4개의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인적 인프라는 전문체육 선수, 직장운동경기부, 지역 내 등록된 체육지도자 수 등 3개의 세부지표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정책환경에서의 체육단체 공모사업 선정 수(CVR=-.26), 시설인프라의 전문체육시설 설치(CVR=-.26), 인적 인프라의 전문체육 선수(CVR=.05)와 직장운동경기부(CVR=.26)는 내용타당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여 제거되었다. 이에 지역체육활동 수용력의 각 분류별 세부지표는 최종적으로 정책환경은 4개에서 3개, 정책예산은 2개, 시설 인프라는 4개에서 3개, 인적 인프라는 3개에서 1개로 수정·선정되었다(표 4).

표 4. 지역체육활동 수용력 지표 델파이 조사 결과

중분류	세부지표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평균	SD	CVR	평균	SD	CVR
정책 환경	지역 내 회원중목 단체 수	4.16	0.765	0.58	4.00	.577	0.58
	체육 관련 조례 제정 수	3.84	0.898	0.58	4.26	.733	0.79
	체육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4.21	1.084	0.58	4.63	.496	0.89
	체육단체 공모사업 선정 수	3.53	1.124	-0.05	3.26	1.046	-0.26
정책 예산	총 예산 대비 체육예산 비율	4.63	0.597	0.90	4.84	.375	0.89
	1천명 당 체육 예산액	4.63	0.597	0.90	4.74	.562	0.79
체육 인프라	공공체육시설 설치 유형	4.21	0.713	0.68	4.42	.507	0.89
	1천명 당 체육시설 면적	4.47	0.841	0.79	4.47	.697	0.68
	전문체육시설 설치	3.53	0.841	-0.16	3.21	.787	-0.26
	체육시설 접근성	4.16	0.958	0.47	4.32	.478	0.89
인적 인프라	전문체육선수 수	3.53	0.905	-0.05	3.37	.895	0.05
	직장운동경기부 수	3.42	0.961	0.05	3.58	.838	0.26
	체육지도자 수	4.26	0.653	0.79	4.21	.535	0.79

2) 지역체육활동 활력도

지역체육활동 활력도는 지역주민 즉, 체육활동 기반 환경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체감하는 지역의 체육활동 현황 및 체육시설 이용 환경, 체육에 대한 가치 등을 의미한다. '2030 스포츠 비전' 이 제안한 '운동하기 편한 나라' 의 추진 방향을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실태를 확인하여 추후 정책 및 체육 관련 사업들의 아젠다를 도출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였다. 지역체육활동 활력도는 시계열상으로 지역체육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며, 체육활동에 대한 가치 인식도, 체육활동 기반 환경에 대한 효용성 및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체육활동 활력도는 체육활동 직접참여, 체육활동 인식, 체육활동 조직 등 3개 항목의 중분류 체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

별로 하위 계층에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델파이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한 지역체육지수의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다.

체육활동 직접참여는 생활체육 참여율, 체육 동호회 가입률,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 생활체육 관련 강습 및 강좌 경험률로 구성하였다. 체육활동 인식은 건강 유지를 위한 체육활동 참여율과 '국민체력100' 참여 인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체육활동 조직은 생활체육클럽, 학교스포츠클럽, 직장스포츠클럽을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체육활동 직접참여의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CVR=-.37), 체육활동 인식의 '국민체력100' 참여 인원(CVR=.26), 체육활동 조직의 직장스포츠클럽(CVR=.05)은 내용타당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여 제거되었다. 이에 지역체육활동 활력도의 각 분류별 세부지표는 최종적으로 체육활동 직접참여 4개에서 3개, 체육활동 인식은 2개에서 1개, 체육활동 조직은 3개에서 2개로 수정·선정되었다(표 5).

표 5. 지역체육활동 활력도 지표 델파이 조사 결과

중분류	세부지표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평균	SD	CVR	평균	SD	CVR
체육 활동 직접 참여	생활체육 참여율	4.47	0.697	0.79	4.84	.375	0.89
	체육동호회 가입률	4.42	0.692	0.79	4.79	.419	0.89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	3.63	0.895	-0.05	3.05	.970	-0.37
체육 활동 인식	생활체육관련 강습 및 강좌 경험률	3.95	0.848	0.47	3.95	.621	0.47
	건강 유지를 위한 체육활동 참여율	4.11	0.809	0.68	4.32	.671	0.68
체육 활동 조직	<국민체력100> 참여 인원	3.74	0.872	0.16	3.63	.684	0.26
	생활체육클럽	4.32	0.671	0.79	4.58	.607	0.79
체육 활동 조직	학교스포츠클럽	4.05	0.970	0.68	4.47	.772	0.79
	직장스포츠클럽	3.74	0.933	0.26	3.74	.733	0.05

3) 지역체육 혁신역량

지역체육 혁신역량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체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2030 스포츠 비전' 이 제안한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 의 추진 방향과 유사한 맥락이며, 동시에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 이 포함하고 있는 체육정보의 선진화 등의 핵심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체육 혁신역량은 시계열상으로 지역체육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되, 미래 역량에 대한 가치 판단 및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한 지역체육 혁신역량은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취약계층 체육복지 지원 및 경영혁신, 정보화 수준 등 3개 항목의 중분류 체계로 구성하였다. 세부 전략은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은 총 4개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아체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 대상인 스포츠돌봄교실 운영, 청소년 대상인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참여자 수, 노년 대상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구성하였다. 취약계층 체육복지 지원 경영혁신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 집행률, 장애인 인구 1천 명당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인원 비율, 장애인 인구 1천 명당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참여자 비율로 구성하였으며, 정보화 수준은 체육정보의 정보화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모든 세부 전략의 내용타당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내용타당도를 기준으로 삭제되는 전략은 없었다. 다만,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중 초등 대상인 스포츠돌봄교실 운영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개방형으로 다수 나타나 최종적으로 삭제되어 생애주기별 체육 활동지원 3개, 취약계층 체육복지 지원 경영혁신 3개, 체육 정보의 정보화 수준 1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표 6).

표 6. 지역체육 혁신역량 지표 델파이 조사 결과

중분류	세부지표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기술통계			기술통계		
		평균	SD	CVR	평균	SD	CVR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유아체육 프로그램 운영	3.63	1.165	0.37	4.00	.577	0.58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참여자	4.00	0.745	0.68	4.32	.478	0.89
	생활체육교실 운영	4.21	0.631	0.79	4.47	.513	0.89
취약계층 체육복지 지원 경영혁신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 집행률	4.16	0.688	0.68	4.32	.582	0.79
	1천명 당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 인원 비율	4.11	0.809	0.47	4.21	.713	0.58
	1천명 당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참여자 비율	4.16	0.765	0.58	4.37	.597	0.79
체육 정보의 정보화 수준		4.32	0.671	0.79	4.58	.607	0.79

4) 지역체육 거버넌스

지역체육 거버넌스는 지역체육 수준에 대한 책임과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육정책 및 체육사업의 추진 기반 형성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지역체육지수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신사업 구상 및 자체 운영이 가능한 조직의 환경 및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체육 혁신역량'과 유사하게 시계열상으로 지역체육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되, 지역체육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환경과 미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한 지역체육 거버넌스는 체육단체 환경과 지역 스포츠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민간스포츠산업으로 구성하였다. 체육단체 환경은 체육예산대비 지역체육회 예산 비율과 지역체육회 재정자립도로 구성하였으며, 지역 스포츠네트워크 환경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민간스포츠산업은 스포츠사업체

비율과 스포츠산업종사자 비율로 구성하였다.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체육단체 환경의 지역체육회 재정자립도는 1차 델파이에서는 내용타당도가 기준치 이하(CVR=.26)로 나타났으나 2차 델파이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CVR=.47) 채택되었다. 그러나 민간스포츠산업의 스포츠사업체 비율(CVR=.05)과 스포츠산업 종사자 비율(CVR=-.05)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중분류 중 민간스포츠산업은 제거되었다, 이에 스포츠 거버넌스는 최종적으로 체육단체 환경 2개와 지역스포츠 네트워크 환경 1개만 선정되었다(표 7).

표 7. 지역체육 거버넌스 지표 델파이 조사 결과

중분류	세부지표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기술통계			기술통계		
		평균	SD	CVR	평균	SD	CVR
체육단체 환경	체육예산대비 지역체육회 예산 비율	4.42	0.838	0.58	4.74	.452	0.89
	지역체육회 재정 자립도	3.89	0.809	0.26	3.79	.631	0.47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 환경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4.26	0.806	0.79	4.16	.501	0.79
민간 스포츠 산업	스포츠사업체 비율	3.58	0.838	0.16	3.53	.772	0.05
	스포츠산업 종사자 비율	3.58	0.961	0.16	3.42	.692	-0.05

5) 지역체육지수 지표 최종안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역체육지수를 도출한 결과, 지역체육활동 수용력, 지역체육활동 활력도, 지역체육 혁신역량, 지역 체육 거버넌스 등 4개의 대분류 항목과 중분류 12개 항목, 세부지표 25개로 나타났다(표 8). 지역체육지수 분석 시, 지수 산출은 지표별로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국민생활체육조사,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수집 가능하며, 기존 통계자료로 수집이 불가능한 지표별 지수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협조를 요청하면 획득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국민생활체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는 다단계층화집락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기에 표본에서 누락되는 기초자치단체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역체육지수를 활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발전과 효과적인 정책방향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체육발전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활동 수용력 및 활력도와 함께 체육발전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역량과 거버넌스 등 제반 여건의 현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관광발전지수의 경우 17개 광역시·도와 광역도에 있는 152개 시·군 단위에서 격년주기로 산출하고 있고 지역문화 종합지수

표 8. 지역체육지수 지표 최종안 및 자료확보 방안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자료확보방안)
지역 체육 활동 수용력	정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회원종목 단체 수 (대한체육회 요청자료) 체육 관련 조례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종합발전계획 수립 (체육백서)
	정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예산 대비 체육예산 비율 (체육백서) 1천 명 당 체육 예산액 (체육백서)
	시설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체육시설 설치 유형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1천 명 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시설 접근성 (국민생활체육조사)
	인적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지도자 (대한체육회 요청자료)
지역 체육 활동 활력도	체육활동 직접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 참여율 (국민생활체육조사) 체육 동호회 가입률 (국민생활체육조사) 생활체육 관련 강습 및 강좌 경험률 (국민생활체육조사)
	체육활동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유지를 위한 체육활동 참여율 (국민생활체육조사)
	체육활동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클럽 (문화빅데이터) 학교스포츠클럽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생애 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체육 프로그램 운영 (대한체육회 요청자료)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참여자 (대한체육회 요청자료) 생활체육교실 운영 (대한체육회 요청자료)
지역 체육 혁신 역량	취약계층 체육복지 지원 경영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킴과 이용권 예산 집행률 (국민체육진흥공단 요청자료) 장애인 인구 1천 명 당 장애인스포츠킴과이용권 사용 인원 비율 (국민체육진흥공단 요청자료) 장애인 인구 1천 명 당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참여자 비율 (국민체육진흥공단 요청자료)
	정보화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정보의 정보화 수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체육 거버넌스	체육단체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예산 대비 지역체육회 예산 비율 (체육백서) 지역체육회 재정 자립도 (체육백서)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대한체육회 요청자료)

는 지역문화실태조사에 기반하여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2019년 발표된 지역 문화 종합지수는 2017년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상위 10개 지역, 2014년 대비 종합지수 비교,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에 지역체육발전지수도 17개 시도 및 시범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체육발전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체육발전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지수별 분석을 통해 지역체육발전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AHP 조사 결과

1, 2차 델파이 조사를 거쳐 지역체육지수 지표를 최종 도출하고, 각 지표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 분석을 시행하였다. AHP 분석은 항목 간 중요도를 쌍대비교하기 위한 문항으로 9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9점을 가장 높은 수치로, 1점을 가장 낮은 수치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AHP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행렬크기가 3개 이상인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와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확인하였으며, CR값은 0.1 이하일 때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AHP 분석은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우선 대분류 항목에 대한 일관성 지수는 CI=0.005, CR=0.005로 나타나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대분류에서의 상대적 가중치는 지역체육활동 수용력(0.4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체육활동 활력도(0.240), 지역체육 혁신역량(0.183), 지역체육 거버넌스(0.171) 순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지역체육지수 대분류의 가중치

구분	가중치	비고
지역체육활동 수용력	0.406	
지역체육활동 활력도	0.240	CI=0.005
지역체육 혁신역량	0.183	CR=0.005
지역체육 거버넌스	0.171	

지역체육활동 수용력의 중분류의 일관성 지수는 CI=0.027, CR=0.047로 나타나 일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상대적 가중치는 정책예산(0.421), 시설 인프라(0.269), 정책환경(0.174), 인적인프라(0.136)순으로 나타났다. 중분류의 세부지표의 일관성 지수는 정책환경(CI=0.018, CR=0.30), 정책예산(CI<0.001, CR<0.001), 시설인프라(CI<0.001, CR<0.001), 인적인프라(CI=0.000, CR=0.000) 모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분류의 세부지표 가중치는 정책환경에서 체육 관련 조례 제정 건 수(0.47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예산은 총 예산 대비 체육예산 비율(0.511), 시설인프라는 시설 접근성(0.5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지역체육활동 수용력의 중분류 및 세부지표 가중치

중분류	가중치	비고	세부지표	가중치	비고
정책 환경	0.174		지역 내 회원종목 단체 수	0.217	CI=.018 CR=.030
			체육 관련 조례 제정 건 수	0.476	
			체육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0.307	
정책 예산	0.421	CI=.027 CR=.047	총 예산 대비 체육예산 비율	0.511	CI<.001 CR<.001
			1천 명 당 체육예산액	0.489	
시설 인프라	0.269		공공체육시설 설치 유형	0.216	CI<.001 CR<.001
			1천 명 당 체육시설 면적	0.255	
인적 인프라	0.136		시설 접근성	0.529	CI=.000 CR=.000
			체육지도자 수	1.0	

지역체육활동 활력도의 중분류의 일관성 지수는 CI=.000, CR=.000으로 나타나 일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상대적 가중치는 체육활동 직접참여(.598), 체육활동 조직(.239), 체육활동 인식(.163)순으로 나타났다. 중분류의 세부지표의 일관성 지수는 체육활동 직접 참여(CI=.012, CR=.0.12), 체육활동 인식(CI=.000, CR=.000), 체육활동 조직(CI<.001, CR<.001) 모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분류의 세부지표 가중치는 체육활동 직접참여에서 생활체육 참여율(.53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육활동 조직은 생활체육 클럽 수(.66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지역체육 혁신역량의 중분류의 일관성 지수는 CI=.019, CR=.032로 나타나 일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상대적 가중치는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지원(.553), 취약계층 체육복지지원 경영혁신(.285), 정보화 수준(.16)순으로 나타났다. 중분류의 세부지표의 일관성 지수는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지원(CI=.008, CR=.0.13), 취약계층 체육복지지원 경영혁신(CI<.001, CR<.001), 정보화 수준(CI=.000, CR=.000) 모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분류의 세부지표 가중치는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지원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41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약계층 체육복지지원 경영혁신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 집행률(.44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1. 지역체육활동 활력도의 중분류 및 세부지표 가중치

중분류	가중치	비고	세부지표	가중치	비고
체육 활동 직접 참여	0.598		생활체육 참여율	0.536	CI=.012 CR=.020
			체육동호회 가입률	0.239	
			생활체육 관련 감수 및 강좌 경험률	0.224	
체육 활동 인식	0.163	CI=.000 CR=.000	건강 유지를 위한 체육활동 참여율	1.0	CI=.000 CR=.000
체육 활동 조직	0.239		생활체육클럽 수	0.662	CI<.001 CR<.001
			학교스포츠 클럽 수	0.338	

표 12. 지역체육 혁신역량의 중분류 및 세부지표 가중치

중분류	가중치	비고	세부지표	가중치	비고
생애 주기별 체육 활동 지원	0.553		(미취학 대상) 유아체육 프로그램 운영 수	0.262	CI=.008 CR=.013
			(청소년 대상) 신나는 주말학교 참여자 수	0.321	
			(노년층 대상)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	0.417	
취약 계층 체육 복지 지원 경영 혁신	0.285	CI=.019 CR=.032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 집행률	0.422	CI<.001 CR<.001
			장애인 인구 1천 명 당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 인원 비율	0.266	
정보화 수준	0.162		장애인 인구 1천 명 당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참여자 비율	0.312	CI=.000 CR=.000
			체육정보의 정보화 수준	1.0	

지역체육 거버넌스의 중분류의 일관성 지수는 CI<.001, CR<.001로 일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상대적 가중치는 체육단체 환경(.673), 지역스포츠 네트워크환경(.327)순으로 나타났다. 중분류의 세부지표 일관성 지수는 체육단체 환경(CI<.001, CR<.001), 지역스포츠 네트워크환경(CI=.000, CR=.000) 모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분류의 세부지표 가중치는 체육단체 환경에서 지역체육회 재정 자립도(.54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지역체육 거버넌스의 중분류 및 세부지표 가중치

중분류	가중치	비고	세부지표	가중치	비고
체육 단체 환경	0.673	CI<.001 CR<.001	체육예산 대비 지역체육회 예산 비율	0.459	CI<.001 CR<.001
			지역체육회 재정 자립도	0.541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 환경	0.327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1.0	CI=.000 CR=.000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표별 가중치를 대입하여 지역의 종합지수와 분류별·지표별 지역 간 상대비교를 통해 지역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상위 지역 대비 부족한 부분과 수준을 진단 할 수 있다. 즉,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체육지수 산출 결과를 토대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 또는 해당 시·군의 체육발전 수준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기적인 지수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부문별 성과를 진단하여 정책방향 설정 및 지역 체육발전 전략 도출에 활용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체육지수 비교를 통해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과 재정 확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 간 체육여건 분석 및 수준 진단을 위한 지역체육지수를 개발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내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지역체육지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표 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둘째, 기존자료 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지역체육 지표를 선정하였다.

지역체육지수란 지역의 전체적인 체육 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일정기간 동안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복합적인 지표 체계로 각 지역의 체육 수준은 동일시점에서의 체육활동 환경, 체육활동 주제, 체육활동 시스템 등을 복합적으로 포괄하여야 한다. 이에 지역체육지수 지표 체계 설정 방향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지역의 체육 수준 및 현황을 파악하고 동시에 미래의 발전 가능성 및 역량 보유 여부를 내포하도록 하여야 하기에 각 지표는 보편성, 대표성, 명료성, 신뢰성, 조사의 실현가능성 등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30 스포츠비전」이 제시하는 비전,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를 활용하여 체육 현황 통계 자료 수집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지표를 구성하였다. 도출된 세부지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스포츠분야 학계 및 체육단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및 AHP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체육지수 지표 25개가 최종 선정되었다.

지표의 세부 구성은 지역체육활동 수용력, 지역체육활동 활력도, 지역체육 혁신역량, 지역 체육 거버넌스 등 4개의 대분류 항목과 중분류 12개 항목, 세부지표 25개로 구성하였다. 지표 종류는 모두 정량 지표이며, 실질적으로 지역체육지수 분석을 위한 지수 산출은 지표별로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국민생활체육조사,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존 통계자료로 수집이 불가능한 지표별 지수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협조를 요청하면 획득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역체육지수 지표를 바탕으로 지

수를 수집하고 표준화한 후 AHP 분석으로 도출한 가중치를 활용하여 실제 지역체육지수를 산출하고 지역 간 체육여건 분석 및 수준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계자료 중 국민생활체육조사는 표본의 적절성을 위하여 시도의 가구 수를 비례배분하는 다단계층화집락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누락된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는 광역 및 기초를 구분한 지역체육지표 지수를 산출하여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자료 구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관광개발정보시스템(2022.10)
<https://www.tdss.kr/pub/stat/areaTourDevQuotLearn.do>
 김미옥(2015). 스포츠도시 선정 평가지표 개발 연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민철, 김성환(2022). 도시별 비교관점의 체육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7(4), 97-113.
 김성덕(2020).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 부분의 조직인사 분류체계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37(2), 195-204.
 류정아(2013).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p-14.
 백종철, 한민규(2022). 휠체어컬링 경기력 향상을 위한 주요요인 탐색.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40(2), 105-113.
 상아휘, 진승태(2022). Delphi 기법을 활용한 중국 생활체육 태권도 지도자의 전략적 발전방안 : 하남성을 중심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40(1), 105-114.
 송명규(2016). 체육균형발전지수 개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신상현, 남윤신(2021). 생활체육 체감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9(3), 51-62.
 최석현, 하보란(2013). 경기도 지역 결핍지수 개발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p-5.